



Analyst 김도하 · 02-3773-8876 · doha.kim@sk.com

Issue Comment

- ✓ 금융위, '18년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 및 추진 목표 발표 (2p)
- ✓ 이번 발표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금융업 투자와 연결 짓기 보다는 당국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판단
- ✓ 언급된 과제들이 이미 공개된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번 발표가 금융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금융: '금융혁신 추진방향', 당국의 기조를 엿보는 데 의의가 있다.

- 금융위원회는 전일 (1/15 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2018년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 및 추진 목표를 발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하는 원인을 국민 신뢰도 저하로 꼽으면서 금융혁신의 4대 전략으로 ① 금융권의 신뢰 회복, ② 생산적인 자금 중개 기능 강화, ③ 취약계층 및 소비자 보호 강화, ④ 업종 경쟁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 (세부내용 요약은 2page 참조)

- 금융주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 CEO 후보군 관리강화, 임추위 독립성 제고 등 요구), ②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 금융자산 5 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은 금융계열시간 출자액을 제외한 적격자본으로 자본규제 달성할 필요), ③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금융: 스튜어디십 코드 참여 확대 유도), ④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증권), ⑤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 차등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⑥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⑦ 소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 (카드) 등임

-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주요 금융정책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이용자 중심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당국의 기조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음. 더 나아가 금융업종 투자와 연결 짓기 위해서는 항목별 세부 내용의 발표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언급된 과제들이 2017년 기 발표한 대책 또는 신년사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번의 발표가 금융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금융혁신 추진방향 (2018.01.15)' 보도자료 내용

분류			설명	시행시기
1) 금융부문 쇄신으로 금융 신뢰회복	금융당국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 추진	당국부터 변화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	1월
		채용비리 근절	은행권 채용실태 현장점검 이후 제도 개선 추진	1월 이후
		보수공시 강화	금융권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엄격한 공시기준 적용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CEO 후보군 관리강화, 임추위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 반영	1월 이후
		영업관행 개선	부당대출 (과잉대출, 꺾기 등), 불합리한 가산금리 등 잘못된 관행에 엄중 조치	-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 금융행위 근절	주가조작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등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한 적격자본으로 자본규제를 달성할 필요	2월 발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
2)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성장 지원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	창업	민간 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 활성화	-
		성장	모험자금 공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18년 약 2.7조원)	'20년까지 완료
		회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회수를 위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1/11일 발표
		재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3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증개 확대	자본규제 개편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 (고LTV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예대출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가중치 차등,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 도입 등)	1/19일 발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4Q17
		동산담보·기술금융	동산담보 활성화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	2월 발표 6월 발표
3)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서민·취약차주 지원: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구조조정 체계 개선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적극 지원	-
		서민금융 강화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	1월 하반기
		금융이용부담 경감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소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마련	2/8일 1월 발표
		재산형성 지원	ISA 혜택 확대,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연체부담 완화	소멸시효 완성채권 300만건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 - 1/18일 발표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추진	-
4) 경쟁촉진으로 국민 금융편익 제고	인가 개편: 금융분야內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 촉진	사회적금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2월 발표
		은행	영업 인가단위 세분화로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	1Q17
		보험	특화 보험사 (온라인 보험사, 간병보험 전문 보험사 등)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금융투자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사에서 운용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핀테크 활성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유도	신탁	비금전신탁 등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 허용	
		혁신 금융서비스 촉진	핀테크 기술 확산 위한 로드맵 마련 및 본인정보 활용권 보장 여건 확립	2월 발표
		규제 샌드박스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지속 활성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적 금융 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가 규제를 일부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1월 발표
	금융규제 혁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연 확대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 도모 및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2월 발표
		불합리한 규제 혁파	PEF, 저축은행 규제 등 금융 혁신 방해하는 규제 개선 및 관련 인프라 정비	

자료: 금융위원회, SK증권 요약